

교육

| 엄 준 용 | 동향분석 자문위원 (jyum94@korea.ac.kr)

▣ 정책동향

□ 제3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개최(2007. 12. 13)

- 제3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위원과 교육계·산업계·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개최됨.
- 주요 내용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분석」 결과 보고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성과 및 과제」 보고
 - 「제2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안)」과 「부처간 협력을 통한 방과후 활동 효과 제고 방안(안)」심의·의결

□ 교육인적자원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고시(2007. 12. 28)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 12. 28일(토), 외국대학의 우수교육과정 도입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고시
- 주요 개정 내용
 -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정의를 국내대학이 당해 대학의 학위과정을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자구수정하고, 수업이 국내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
 - 운영방법에 있어서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학생평가 등의 운영방법을 해당대학간 약정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함.
-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국내대학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국내대학에 도입하는 방법이나 절차도 해당대학간의 약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 **교육인적자원부,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 · 발표**
(2008. 1. 16)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 1월 16일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유아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 · 발표
- 주요 지원 내용
 - 만 5세아 무상교육비는 129천 명에게 총 2,306억 원을 지원
 - 만 3~4세아 차등교육비는 110천 명에게 총 1,546억 원을 지원
 -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 자녀 14천 명에게 총 148억 원을 지원
 - 지원 대상 계층은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4인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398만 원 이하)까지로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85천 원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
- 2008년 유아학비 지원은 전년도 지원금액(3,426억 원)보다 16.8% 늘어난 4,000억 원이며, 지원인원도 '07년 244천 명에서 9천 명이 더 늘어나 253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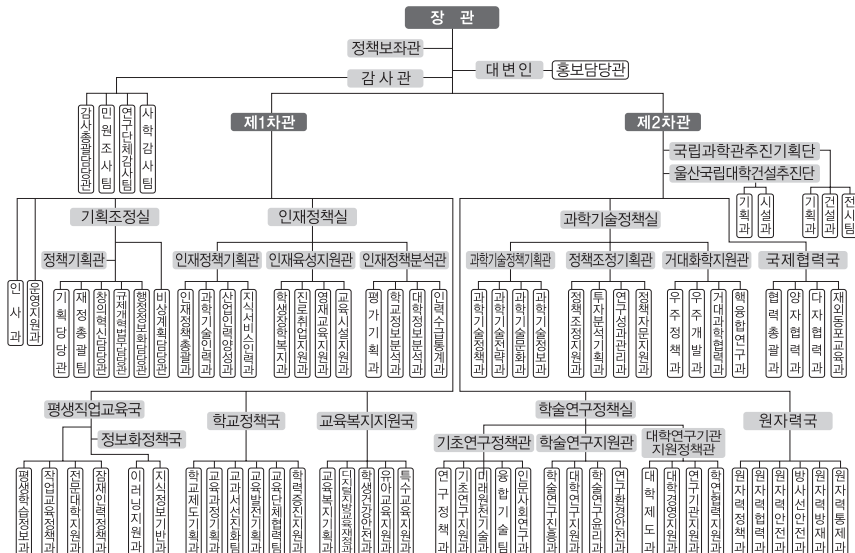
□ **평생교육진흥원 출범(2008. 2. 15)**

- 국가 평생교육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이 2008년 2월 15일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음.
-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기능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주요 평생교육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 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 연수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
 - 학습계좌제의 통합 관리 · 운영 등
-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평생학습도시, 성인문해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사업과 학습결과의 평가 · 인정제도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 및 업무 개시(2008. 3. 13)**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이 최종 확정되었고, 동년 3월 13일 업무 개시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
 - 조직은 장관 밑에 2명의 차관을 두어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하였고, 4실·5국·12관·72과 체제로 개편
- 제1차관은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를 담당하며, 2실(정책기획실·인재정책실) 3국(평생직업정보화국·학교정책국·교육복지지원국) 6관 34과를 두고, 영어교육강화추진단, 교육분권추진단을 포함하고 있음.
- 제2차관은 기존의 과학기술부 업무와 학술과학진흥 업무를 관장하며, 산하에 2실(학술과학정책실·연구개발정책실) 2국(국제협력국·원자력국) 6관 38과가 설치되어 그동안 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해오던 업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행해오던 학술연구 업무를 흡수, 함께 수행하게 됨.
- 이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장하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인적자원개발본부와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조정업무는 일부만 인재정책실로 이관되고 폐지됨.

그림1. 교육과학기술부 조직도



□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2008. 3. 20)

- 2008년 3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에게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보고함.
 - 교과부는 업무 보고에서, 정부주도의 획일적 서비스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육체제를 자율화·다양화하는 한편, 교육에서 낙오된 사람이 없도록 복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힘.
 -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과부가 출범한 취지에 부응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효율화함으로써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여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며,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힘.

○ 주요 내용

교육살리기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화·다양화된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과 관련된 정부 기능을 금년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 -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수행 - 학교 및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되, 학생들의 주요 교육정보를 공시하고, 교육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 강화 - 영어공교육 완성,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교원능력제고 인프라 구축 및 바른인성, 문화소양 교육 등을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배가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전 국민 평생학습 활성화,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 플랜을 추진하여 누구나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
과학기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 - 기초연구 진흥 및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유치 - 대학 연구기관 역량 강화 추진 - 과학기술 핵심역량을 강화·확충 -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핵심인재를 양성 -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신산업을 창출

- 이러한 교과부의 업무보고는 교육분야의 경우 불필요한 각종 규제의 혁파와 교육의 다양화 및 자율화가 그 핵심이며, 과학분야의 경우 과학기술자들의 연구환경 개선과 핵심 과학기술 인재 양성으로 요약될 수 있음.

연구동향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7 평생학습실태조사' 결과 발표 (2007. 12. 17)

-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07년 12월 17일, 평생학습참여율 등에 관한 '2007 평생학습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
 - 동 조사는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자' 관점의 실태조사로서 OECD '평생학습' 영역 조사기준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조사로,
- 주요 결과
 - 2007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은 29.8%로 25세 이상 64세 이하 4명 중 1명 이상의 성인이 교육이나 훈련, 학습활동 등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평균 26%(OECD, 2005)보다 3.8%p 높은 참여율을 보임.
 - 2007 직업관련-비형식교육 참여율은 10.5%로 OECD 국가 평균 참여율 18%와 비교하여 낮으며 경제활동인구(취업자 및 실업자)의 직무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역시 OECD 단순평균 23.2%와 비교하면 10%정도 낮은 13.4%를 나타내,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인적자원개발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 직업관련-비형식교육 평균참여시간은 119시간으로 낮은 참여율과 더불어 참여시간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단순평균치를 보면 389시간이며, 덴마크 934시간, 스위스 723시간, 프랑스 713시간과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참여 강도를 보임.
 - 평생학습 참여자의 연평균 투자비용은 522.5만 원, 비형식교육 참여자는 47.9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참여율도 높고 투자비용도 많았음.
 -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으로는 '교육훈련비용이 비싸다'가 31.5%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부양 책임으로 시간이 부족(22.6%)', '참여한 교육기관이 너무 멀다(22.0%)', '불편한 교육시간대(2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2007. 12. 21)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12월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2006.

10. 18(수)~19(목) 실시한 200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
-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 기초학력 책임지도 등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
 - 2006년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3%에 해당하는 60,846(905교)명을 표집하여 국어 · 사회 · 수학 · 과학 · 영어 5개 교과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 결과는 교과별 · 성별 · 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균점수와 4단계 성취수준(우수 · 보통 · 기초 · 기초 미달)으로 분석하였고, 2003년을 기준으로 지난 4년간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도 분석함.

○ 주요 결과

- 교과별 평균점수는 기준 연도인 2003년도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평균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6은 사회를 제외한 모든 교과에서, 중3은 수학 · 과학 · 영어에서, 고1은 국어 · 수학 · 영어에서 교과별 평균점수가 기준 연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을 기준 연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수학력' 비율이 초6은 사회 · 수학 · 과학 · 영어에서, 중3은 수학 · 영어에서, 고1은 국어 · 영어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초6은 국어 · 사회 · 수학 · 과학에서, 중3은 수학 · 과학 · 영어에서, 고1은 국어 · 영어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을 비교하여 기준연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수학력' 비율이 초6은 모든 교과에서 여학생이 높았으며, 중3과 고1의 경우 국어 · 영어 교과에서는 여학생이, 사회 · 수학 · 과학 교과에서는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은 초6 · 중3 · 고1의 모든 교과(중3 · 고1의 수학 제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 통계청,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2008. 2. 22)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 2월 22일, 『2007년 사교육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
 - 이번 조사는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초 · 중 · 고 학생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 참여율, 규모 등을 상세히 파악 제공함으로써 관련 부처의 정책 입안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 ·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되었음.
 - 조사 대상은 전국 초 · 중 · 고 272개 학교의 학부모 약 34,000명

- 그동안 부정기적인 정책연구 형식으로 파악하던 사교육비 실태를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사교육비 실태의 변화 추이 및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주요 결과

- 2007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 원으로, 초등학교 10조 2천억 원, 중학교 5조 6천억 원, 고등학교 4조 2천억 원 등으로 추정됨.
- 2007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 2천 원(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은 28만 8천 원), 참여율은 77.0%, 참여시간은 주당 7.8시간임
- 월평균 사교육비 계층별 분포는 20만 원대를 지출하는 학생이 18.8%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학생은 9.3% 수준임.
-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은 수학 58.6%, 영어 55.6%, 국어 39.3%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지역(28만 4천 원)은 읍면지역의 약 2.3배 수준임
- 성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및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아버지 학력 수준 보다는 어머니 학력 수준이 사교육에 더 영향을 끼침
-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았으며,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 계층은 100만 원 미만 계층 보다 8.8배를 더 지출
- 사교육 수강의 목적은 선행학습(31.8%)을 위해 가장 많이 수강하고, 학교 수업보충(27.5%), 진학준비(24.2%) 순임

▣ 교육비 동향

□ 2007년 4/4분기 월평균 교육비,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

- 2007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실질 -0.8%) 증가한 234만 3천 원으로 나타남.
- 월평균 교육비는 22만 9천 원(소비지출 대비 9.8%)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
- 2007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34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5.8%(실질 3.2%)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교육비 지출은 28만 1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

표1.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총액 대비 교육비 지출

단위: 천 원,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4/4분기		연간			4/4분기		연간		
	증감률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구성비	증감률	
소비지출	2,286.0	8.3	2,220.0	100.0	4.4	2,343.3	2.5	2,348.8	100.0	5.8
실질	2,228.0	6.0	2,172.2	-	2.2	2,210.7	-0.8	2,241.2	-	3.2
교육	204.4	2.6	255.9	11.5	3.3	229.3	12.2	281.8	12.0	10.1

주: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실질소비지출 = (소비지출)/(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가계수지)』, 각 호.

- 2007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2%가 증가하였는데 보충교육비(15.7%)와 교재비(10.1%)가 증가한 반면, 납입금은 전년 동기대비 0.1% 감소
- 동분기 월평균 교육비 지출 중 보충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납입금은 17.4%로 그 뒤를 이음.
- 한편, 2007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하였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보충교육비였음(10.9%).
- 교육비 총액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충교육비(62.1%)였으며, 납입금이 33.3%로 그 뒤를 이음.

표2.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내역 추이

단위: 천 원,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2006년 4/4분기			2007년 4/4분기			2007년		
	구성비	증감률		구성비	증감률		구성비	증감률	
교육	204.4	100.0	2.6	229.3	100.0	12.2	281.8	100.0	10.1
- 납입금	39.9	19.5	14.6	39.9	17.4	-0.1	93.8	33.3	10.0
- 교재비	7.4	3.6	25.9	8.2	3.6	10.1	9.3	3.3	2.6
- 보충교육비	153.7	75.2	-0.8	177.8	77.6	15.7	175.1	62.1	10.9
- 문구류	3.3	1.6	-6.0	3.3	1.4	0.3	3.6	1.3	-3.4

주: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http://kosis.nso.go.kr).

- 2007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보충교육비 지출을 살펴보면, 자녀의 과외비를 나타내는 학원 및 개인교습비는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16만 2천 원, 기타 보충교육비는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1만 5천 원으로 나타남.
- 또, 2007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보충교육비 지출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17만 5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학원 및 개인교습비가 15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0%가 증가

표3. 보충교육비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전년 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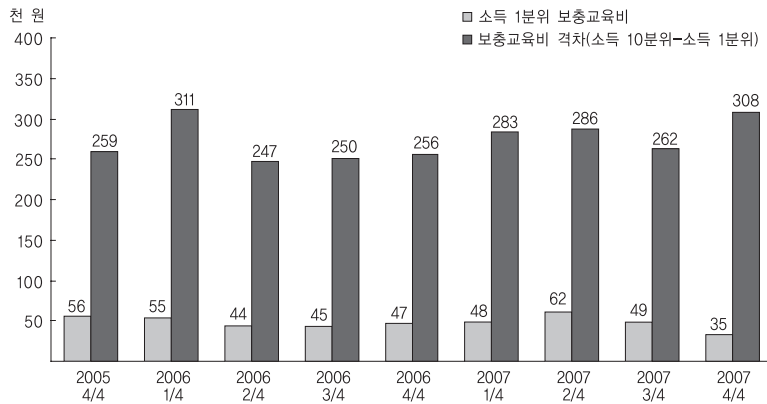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4/4분기		2004년 4/4분기		2007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보충교육비	153,727	-0.8	177.8	15.7	175.1	10.9
- 학원 및 개인교습비	139,378	1.9	162.0	16.2	159.2	13.0
- 기타 보충교육비	14,349	-21.4	15.9	10.7	16.0	-6.4

주: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http://kosis.nso.go.kr).

□ 소득 분위별 교육비 격차, 소득 최상위(10분위)가 최하위(1분위)의 약 7.4배

- 2007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최하위 10%(1분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소비지출(115만 6천 원)의 5.0%인 5만 6천 원, 소득 최상위 10%(10분위) 계층은 월평균 소비지출 417만 1천 원의 10.0%인 57만 8천 원을 교육비로 지출함.
- 10분위와 1분위의 교육비 지출액 격차는 35만 9천 원으로, 10분위의 교육비 지출이 1분위 7.4배로 나타남.
-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분위별 보충교육비는 10분위 34만 2천 원, 1분위 3만 5천 원으로 30만 8천 원의 격차를 보였으며(10분위가 1분위의 약 9.9배), 이는 전년 동기(25만 6천 원) 대비 5만 2천 원(20.2%)이 증가한 것임[그림 2].

그림2. 소득 분위별 보충교육비 격차



주: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http://kosis.nso.go.kr).

□ 교육물가지수

- 2008년 2월 교육물가 지수는 113.1로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2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대비 3.6% 상승). KOSIS

표4. 교육물가지수 추이

(2005=100)

연도 월	2007												20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총지수	102.8	103.5	104.1	104.5	104.6	104.6	105.0	105.1	105.7	105.9	105.9	106.3	106.8	107.2
교육	106.2	107.4	111.7	111.9	111.9	111.9	112.0	112.1	112.1	112.2	112.2	112.4	112.9	113.1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DB(<http://kosis.nso.go.kr>).